

V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2009 · 2010 기획공모 – 해외연수사업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결과보고서



2009 · 2010 기획공모 – 해외연수사업
사회적기업가 날개 달아주기 결과보고서

사업명

사회적기업 노란들판,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 연수팀명 노란들판 · 연수참가인원 2명

· 연수기간 2010년 7월 8일~10일(2박 3일) · 연수지역 중국 상해



1. 연수목적 및 목표

■ 연수개요

올해로 18회를 맞는 '상해 국제 광고산업 및 기자재 박람회'는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상해신국제 전시장(SNIEC)의 총 11개홀(150,000㎡)에서 700여업체가 참여하고 약 60,000여명이 참관하는 광고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이다.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업체의 다양한 상품전시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디지털출력 분야의 사회적기업으로서 과거 10년이 현재 1년과 맞먹을 정도로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박람회 참여를 통해 최근 산업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아이템 발굴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한다. 다양한 전시품목 중에서 친환경 솔벤트 시스템, LED 제품, 뉴 미디어 기술 및 장비 등 두세 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견학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노란들판'이 가장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람회 홈페이지 주소〉

http://exhibition.appexpo.com/APPPEXPO_English/APPO_Index.aspx

■ 연수목적과 목표

'상해 국제 광고산업 및 기자재 박람회' 참관을 통해 장애인이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여 급속도로 변모해가는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경쟁력을 키운다.

- 1) 친환경 솔벤트 시스템을 갖춘 제품 파악
- 2) 실내인테리어용 LED 제품의 활용방안과 사업확장성 모색
- 3) 장애인의 조작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 조사

2. 참가자 명단

NO.	성명	소속단체명	부서 및 직위	연수팀 내 역할
1	박시백	노란들판	디자인팀장	총괄, 회계
2	신봉준	노란들판	시공팀장	서기, 사진

3. 연수 전 활동

■ 1회차

일 자	2010년 7월 5일(월)
장 소	노란들판
활동 목적	박람회 참가 주관람 포인트 논의
참석자	박시백, 신봉준
활동 내용	· 박람회 참가 중 업무 분장 · 박람회 전시품목 확인 · 집중적으로 살펴 볼 핵심분야 선정
활동 평가	신규아이템 창출이 주된 목표라는 재확인을 통해 LED제품으로 집중적인 관람분야를 선정함

■ 2회차

일 자	2010년 7월 6일(화)
장 소	노란들판
활동 목적	박람회 참가일정 최종점검 및 준비물 확인
참석자	박시백, 신봉준
활동 내용	· 박람회 최종일정 및 주의사항 공유 · 주관여행사인 EB 박람회투어에 참가비 결제 확인
활동 평가	짧은 연수기간이지만 노란들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견해서 오자고 다짐함

4. 연수 일정

날 짜	방문기관	세부내용
7월 8일(목요일)	상해신 국제전시장	LED & Lighting Hall
7월 9일(금요일)	상해신 국제전시장	Printing & Packaging Product Fair Exhibition Display Commercial Facility Hall
7월 10일(토요일)	상해신 국제전시장	Printing & Printer Machinery Hall Printing & Printer Materials Hall

5. 방문국의 사회적기업 현황(미국 WAP 사업 관련 현황)

■ 중국 상해(상하이)의 일반적인 사항

1842년 남경조약으로 개항된 이후 중국 내외의 새로운 문물을 흡수해 온 국제적인 상업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의 하나로, 중국의 가장 큰 도시이며 중국의 주요 문화·금융·산업·상업·통신의 중심지이다. 원래는 어촌이었던 상하이는 20세기에 와서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며, 6,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해의 총면적은 6,184km²이며, 1,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640만 명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다. 서양에(영국) 개방된 중국 최초의 항구도시로 오랜 기간 동안 외국인들의 근거지였다. 1945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로 재탄생한 이후부터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별 다른 발전을 보이지 않았지만 개방이후 90년대 중앙정부가 이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동양의 또 다른 홍콩을 닮아가면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중심 도시가 되었다.

상해는 여는 중국의 도시들과는 색다른 곳이다.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장려하는 상해시 정책에 의해 상해의 고층빌딩들은 기발한 디자인으로 건립되어 멋진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 외국인들의 근거지였던 외탄과 황푸강 바로 건너편 들쭉날쭉한 현대적 고층빌딩은 강 하나사이로 상해의 옛모습과 현재를 이어주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2010년 5월 1일 개막한 상하이 엑스포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엑스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이번 중국 2010상해엑스포는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생활' (Better City, Better Life)라는 주제로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린다. 행사장은 황푸강을 중심으로 5.28km² 면적의 크기에 189개 국가와 57개 국제조직이 전시관을 만들고 참여했다.

■ 중국 상해(상하이)의 일반적인 사항

조사 결과 중국에는 아직 제대로 된 사회적 기업이 없다. 근래에 들어서야 중국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워낙 넓고 인구도 워낙 많은 곳이니 다양한 방식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이 나오지 않을까. 노란들판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므로 중국의 장애인 노동 참가 현황과 취업 지원 정책에 대한 기사를 덧붙인다. 중국 장애인의 고용현실에 대해 연변주 장애인연합

회 교육취업부 량려하 부장은 “장애인의 취업률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동시에 안정적이지 못하고 비교적 낮은 소득을 받는 직업군에 머무른다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지적장애인은 취업 자체가 어려워 여전히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대해 설명했다. 량려하 부장은 중국이 □ 인구가 많고 노동력 총량이 방대해 취업 수요는 많은 데 비해 일자리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과 □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만든 장애인 취업 보호정책의 집행 역량이 강하지 않다는 점 □ 산업조절과 도시화 발전과정에 있어 실업인원이나 퇴직인원 및 농촌에 남은 인력이 계속 증가한다는 점 □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해 취업의 공급과 수요가 조화롭지 못한 점 □ 직업기능훈련을 활성화시켰으나 훈련 후 취업률은 높지 못하다는 점 등을 장애인 취업에 영향을 주는 이유로 꼽았다. 이어 량려하 부장은 “장애인이 취업으로 인해 경제 수준이 높아지면 기타 생존 문제는 순리적으로 해결된다. 이를 위한 장애인 취업 사업의 우선적인 문제는 법률 법규 및 정책의 보장”이라고 설명하며 가장 먼저 중국의 장애인취업에 관한 법률과 법규를 소개했다.

우선 입법적 보장으로 류패웬 부장이 설명했던 ‘장애인보장법’에 취업과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 권리를 보장하며 각급 인민정부는 장애인의 노동 취업에 관해 전면적인 계획을 세워 장애인을 위하여 노동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행정적 보장으로는 2007년부터 실시한 ‘장애인 취업조례’가 있는데, 이는 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규칙으로 고쳐 장애인 취업 사업을 규범화하고 행정 집행 역량을 강화한 것이라고 한다. 량려하 부장은 “이로써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장애인 노동 권리를 침해한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본 조례의 반포와 실시는 장애인 취업 사업이 이미 전반적으로 법제화 궤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노동과사회보장부가 연합으로 하달한 ‘실업 장애인 직원의 기본 생활보장과 실업 후 재취업 사업에 관한 통지’에서는 장애인 실업을 방지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이 외에도 “장애인, 외로운 노인과 열사 가족의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줄여서 징수한다.”고 규정한 ‘소득세법’, “장애인이 가공·수리·조립·노무 등 업종에 종사하면 부가가치세 징수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재정부 세무 총국 ‘통지’, ‘사회복지기업 장애인 직원 채용에 관한 잠정규정’ 등의 법·제도가 있어 이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의 집중배치와 분산배치가 이뤄진다는 것이 량려하 부장의 설명이었다. 분산배치는 비례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을 배정하는데, 이 역시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취업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력을 채용하려는 기업은 장애인을 본 회사 재직 인원 총 수의 1.5%보다 낮게 채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구체적 비례는 성·자치구·직할시·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상황에 따라 규정하는데, 량려하 부장이 일하는 길림성은 1.6%로 규정하고 있다고. 량려하 부장은 이어 “이때 장애인 고용에 있어 비례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국가재정부에서 반포한 ‘장애인 취업 보장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장애인 취업 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며, 장애인 취업이 규정하고 있는 비례를 초과하거나 성적이 뚜렷한 회사에 대해서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장려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취업 보장 대책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집중배치의 일환인 ‘세수 우대 정책’이었다. 량려하 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수우대정책은 기업이 한 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면 매년 부가가치세를 반환하거나 영업세를 감소하는 세수 우대 정책은 해당 지역 최저 급여 표준의 6배의 기준으로 확대되, 개인당 매년 최고 중국 돈으로 3만5천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기업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실제 급여는 기업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공제하며, 그 액수는 장애인근

로자에게 실제로 지불하는 급여의 100%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이어진 량려하 부장의 얘기였다. 이러한 세수 우대 정책을 향수할 수 있는 회사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집중 배치해 취업시키는 복지기업,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을 포함하며, 아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한다. 그 기준은 □ 법에 따라 채용한 모든 장애인과 1년 이상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할 것 □ 월평균 실제 배치한 장애인이 그 회사 재직인원 총수의 25% 이상일 것 □ 실제 채용한 장애인 수가 10명 이상일 것(이 모든 조건을 갖출 경우 부가가치세, 영업세, 기업 소득세 등을 모두 감면 받을 수 있고, 월평균 실제 채용한 장애인이 그 회사의 재직인원 총수의 25%보다 낮고 실제 채용한 장애인 수가 5명 이상인 회사는 소득세에 관해서는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와 영업세에 관한 감면을 받지 못한다.) □ 채용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정책 규정에 따른 기본 사회보험료를 매월 정액대로 납부할 것 □ 인민정부에서 비준한 최저급여표준보다 낮지 않은 급여를 실제로 지불할 것 □ 장애인 편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출 것 등 다섯 가지인데, 이중 하나만 부족해도 우대정책을 향수할 수 없다는 게 량려하 부장의 이야기였다.

(중국의 장애인 노동 참가 현황과 취업 지원 정책, 함께걸음 김라현기자, 2010. 6. 22)

6. 방문기관분석

1) 상해신 국제전시장 LED & Lighting Hal

방문일자	2010년 7월 8일(목)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LED및 Lighting 관련제품 전시
방문목적	LED 제품의 활용방안과 사업확장성 모색
방문기관 담당자	
홈페이지	www.appexpo.com
주소 및 연락처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SNIEC)

■ 방문내용

1) 개요

올해로 18회를 맞는 ‘2010 상해 국제 광고산업 및 기자재 박람회’는 상해신국제전시장(SNIEC)의 총 11개홀(150,000㎡)에서 700여업체가 참여하고 약 60,000여명이 참관하는 광고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박람회이다. 전문적이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업체의 다양한 상품전시를 통해 디지털시대의 미래를 미리 만나볼 수 있다.

- 전시기간: 2010년 7월 7일~7월 10일
- 장소: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2) 전시품목

- 대형스크린 프로젝터와 시스템
- 도시 조명 개발 프로젝트 등 LED 응용기술 및 장비
- 옥외 조명 기술 및 장비 / 옥외 네온 제조 및 장비
- 실외 라이트 박스
- 광고보드 제조
- 옥외 광고 매체
- 야외레이저 / 레이저 응용기술 및 장비 제조업

■ 기관평가

Shining Optoelectronics Technology: 창립한지 5년이 된 LED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의 회사이다. 주생산품으로 LED광고포스터, LED매직미러, LED카스티커, LED배지, LED이어폰, LED티셔츠, LED안경, LED안전조끼 등이 있으며, 직원이 800명이고 공장이 세 곳이라는 탄탄한 중소기업으로 음악을 들을 때 선이 발광하는 LED이어폰, 음악의 박자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LED티셔츠 등이 관심을 끌었으나 무엇보다 LED로 된 안전조끼가 가장 눈에 들어왔다.

■ 시사점

우리나라에서는 야광띠를 X자 혹은 십일자로 두른 안전조끼가 보편화되어있다. 안전조끼의 목적이 야간에 식별력을 높여 야간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기존 안전조끼는 단지 외부 조명에 따른 반사력에만 의존하고 있기에 안전성에 있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LED안전조끼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차량 등에 의한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도로상에서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경찰, 환경미화원, 도로정비작업자 등 관공서의 수요가 많은 제품의 특성상 사회적기업물품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된다면 노란들판의 판매품목으로 삼을 만하다. 부분완성품을 들여와서 조립하는 가내수공업으로 제작한다면 별다른 추가 공간이 필요 없고 장애인도 충분히 조립가능하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



· 박람회 등록부스 · LED 관련제품

2) 상해신 국제전시장 Printing & Packaging Product Fair, Exhibition Display Commercial Facility Hall

방문일자	2010년 7월 9일(금)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POP 관련제품 전시
방문목적	다양한 POP제품의 최근 동향 파악
방문기관 담당자	
홈페이지	www.appexpo.com
주소 및 연락처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 방문내용

· 전시품목: 디스플레이 설비, 바-카운터 등의 부스 디자인, 각종 POP, 핑시스템, POS, 상점 진열장 정비와 시설

■ 기관평가

360도회전거치대, 삼면거치대, 롤스크린형상의 거치대 등 다양한 배너거치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 시사점

현재 노란들판에서 취급하고 있는 배너거치대 종류가 불과 세가지인데 품목다양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 POP 관련제품

3) 상해신 국제전시장 Printing&Printer Machinery Hall, Printing & Printer Materials Hall

방문일자	2010년 7월 10일(토)
방문기관의 성격(주요사업)	· 디지털프린팅 · 관련장비 전시
방문목적	친환경 솔벤트 시스템을 갖춘 제품 파악
방문기관 담당자	
홈페이지	www.appexpo.com
주소 및 연락처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re

■ 방문내용

· 전시품목: 디지털프린팅 시스템, 솔벤트 시스템, 플렉스 제품, 인쇄장비 및 소모품, 광고 및 간판 장비 및 자재, 컴퓨터 커팅 및 판화, 테스트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 기관평가

출력품질은 훌륭하나 솔벤트출력기를 현재 도입하기엔 실용성과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 냄새를 줄인 장비들이 나왔다고 하나 현장에서 확인해본 결과 가격이 워낙 고가이고 독한 냄새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 시사점

환경에도 안 좋고 무엇보다 휘발성이 강한 냄새로 장애인 직원분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된다.



· 솔벤트 관련제품

7. 연수 일지

1) 2010년 7월 8일(목요일)

지나가는 차량 3대 중 한 대가 폴크스바겐일 정도로 폴크스바겐 브랜드의 차가 많이 보였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후 엄청난 전시장 규모에 놀랐다. 전문적인 박람회라 일반인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도 보였다. LED쪽이 집중관람목표였기에 첫째날은 LED분야에 할애해서 관람하였고, 총 전시면적의 4분의1 정도이지만 이정도만으로도 코엑스 전체 전시장 규모에 뒤지지 않았다. 그만큼 많이 걸어야 해서 다리가 금새 피곤해졌지만 다양한 LED제품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다. 특히 LED안전조끼는 한국에서 만들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서 제품화할 수 있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된다.

2) 2010년 7월 9일(금요일)

서울과 비교하여 먹는 것에 대한 물가는 비슷한데 음료는 저렴했다. 많이 걷다보니 목이 마른데도 찬물을 파는 곳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물을 차게 안먹는 문화라고 했다. 다양한 POP제품의 최근 동향 파악에 주력했고, 한국에서 보지 못하던 형식의 배너거치대를 많이 접하였다. 사진을 못찍게 해서 카다로그만 받았다. 현재 노란들판에서 취급하는 거치대의 종류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3) 2010년 7월 10일(토요일)

솔벤트출력기는 특유의 독한 냄새를 포함하여 환경적인 부분을 제일 걱정했었는데 냄새를 줄였다고 해도 여전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 직원이 많은 노란들판에서는 취급불가품목으로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었다.

7. 연수 후 활동 평가

다양한 LED분야 제품을 접할 수 있었고 그 중 LED안전조끼라는 아이템을 발견하였다. 국내 LED모듈제작업체와 안전조끼제작업체를 컨택하여 각각의 부품을 조달받아서 완성품을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할 예정이다. 솔벤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안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하여 백지화 시켰다.

8. 결론

■ 전체평가

5년 연속으로 상해 국제 광고산업 및 기자재 박람회에 참가하신다는 어느 사장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부딪쳐야 보입니다” 영어는 커녕 중국어 한마디도 몰라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그냥 구경만 하고 가셨다는데 매해 참가하시면서 무작정 부스에 들어가서 안되는 영어와 바디랭귀지를 동원하여 계약도 하시고 이제는 한번 오실 때마다 크게 남는 장사를 하신다고 한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일정 속에서 하나라도 건지려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했는데 관심 있는 분야의 부스에 들어가서 자신있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다행히 연수의 주된 목표였던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뭔가 많이 부족함을 느낀다. 앞으로도 국내에서 열리는 동종분야의 전시회에 꾸준히 참가하여 계속하여 새로운 것을 찾고 연구하고자 한다.